순천의 가을, 글로벌 콘텐츠로 물든다

17~19일 페스티벌 '올텐가'
애니·게임 등 콘텐츠 총출동
3000대 드론쇼·'케데헌' 공연도

순천시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인 '올텐가(All Content Garden)'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오천그린광장, 정원워케이션, 원도심 클러스터 일대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도심 속 6만 평 광장을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로 가득 채움과 동시에 기업과 창작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17일, 올텐가의 첫 장은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로 장식한다.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의 지휘 아래 47인의 서울페스타 필 하모닉의 선율과 카이, 아이비의 라이브 공연이 더해져 품격 있는 광장형 오케스트라를 선보인다. 국내외 명작으로 꼽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어공주, 알라딘 등 테마곡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OST 등 화려한 선율이 6만 평 광장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18일에는 올텐가의 시그니처 연출로 꼽히는 '캐릭터 드론쇼'가 준비됐다. 무려 3000대의 드론을 동원해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CJ ENM과 협업해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시 마스코트 루미와 뚱이를 필두로 핑크퐁과 아기상어, 벨리곰, 잔망루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테디 IP인 스머프도 오천그린광장 상공에 그려지게 된다.

드론쇼 이전에는 '케이타이거즈'의 케데헌 특별 기획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타이거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액션 시퀀스를 연출한 장본인인 만큼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액션 퍼포먼스와 함께 댄스 공연도 함께 곁들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핑크퐁과 루미뚱이의 싱어롱쇼를 비롯한 핑크퐁 가든워킹으로 캐릭터와 가까이 호흡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순천시는 지역 IP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을 넘어 마니아들을 불러 모을 서브컬처와의 결합도 시도한다.

이외에도 ▲김풍 작가 토크콘서트 ▲일본 애니메이션 '룩백' 감독, 요시야마 키요타카 토크콘서트 등 콘텐츠를 주제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올텐가는 차별화된 광장문화를 향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B2C 영역을 넘어 콘텐츠산업을 키워가는 비즈니스의 장(산업전)이기도 하다. 원도심 공실이 콘텐츠 기업 사무실로 변모해 가며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낸 만큼 기업의 산업 역량도 지역에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텐가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로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콘텐츠를 향한 비전 있는 기업과 학생, 창작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순천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겸백면민회관 재정비 업무협약 체결

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와

보성군 겸백면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성강수력발전소가 지난달 25일 겸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겸백면민회관 보수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겸백면민회관'은 겸백면민의 주요 회의 장소이자 실버대학 교실, 각종 행사 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건물이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며, 겸백면은 이를 활용해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음향기기 교체, 책상·의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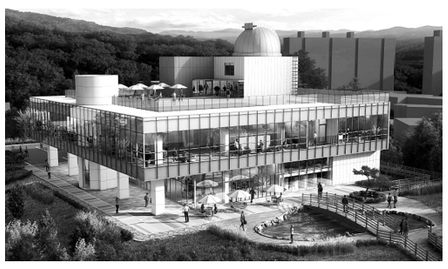
임윤모 겸백면장은 "겸백면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보성강수력발전소에 감사드린다."라며 "차질 없이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강수력발전소'는 1937년 준공된 국내 최고령 수력발전소로, 매년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립환경도서관, 다음달 3일부터 휴관

리모델링 공사…내년 12월 재개관



여수시가 환경도서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특화 도서관으로 새 단장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전면 휴관에 들어간다. 재개관은 내년 12월 중 예정돼 있다.

이번 휴관은 환경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휴관에 앞서 자료실 도서 대출은 12일까지, 반납은 내달 2일까지 가능하다. 이달 13일부터 휴관 전까지는 자료실에서 도서 열람은 가능하나 대출은 제한된다.

휴관 이후에는 환경도서관 정문 앞 도서반납함이나 이순신·쌍봉·현암도서관을 통해 도서를 반납할 수 있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총 66억여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노후시설 보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및 환경·생태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다. 영유아·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공간, 천체관측실, 환경교육센터 등이 새롭게 마련된다. 〈조감도〉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휴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독감 예방접종 내년 4월까지 순차 시행

구례군이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내년 4월30일까지 순차적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 무료지원 대상자와 구례군 자체 무료지원 대상자, 유료 접종 대상자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임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며, 접종은 내달 15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구분되어 있다.

75세 이상은 내달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전국 모든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구례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인 구례병원, 구례서울의원, 삼성의원, 세브란스의원,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 이정회내과의원, 최재활의학과의원,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도 가능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페루 지방정부 시장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광양시를 방문해 상호 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페루 지방정부 시장 대표단 11명 광양시 방문

산업현장 시찰 미래산업 협력 논의

광양시는 페루 지방정부 시장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광양을 방문해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 참석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산타로사·찰와와초·파우카르 델 사라사라 3개 도시 시장과 포럼 관계자 등 11명이 함께했다.

페루 대표단은 이번 일정에서 광양시의 스마트 안전도시 정책, 스마트팜 모델, 항만 물류 경쟁력을 살펴보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날 환영만찬에서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튿날에는 ▲AI 기반 실시간 안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스마트팜 ▲광양항 등을 차례로 시찰하며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광양의 역량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광양시는 칠레 발파라이소, 파나마 파나마시티 등 기존 교류 도시를 넘어 남미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에서 한 단계 도약해 스마트도시와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상생 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광양시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심청어린이대축제 기념 곡성어린이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곡성군이 오는 23일부터 4일간 열리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기념해 이달 한 달간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17일에는 김탁환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지막 호랑이 왕대'를 함께 읽고 생태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25일에는 '가을, 영화 속 선율을 만나다' 공연이 있다.

친근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OST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앙상블 연주가 가족들과 관광객의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12일과 19일에는 '호랑이 떡과 곶감말이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26일에는 실감형동화체험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이 운영된다. 또한, 이용자들을 위한 상시 이벤트로 '나만의 호작도 엽서 만들기'도 준비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061-363-9852)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도서관에 머무르고 즐기며 좋은 추억을 쌓아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